



즉시 배포용: 2017 년 3 월 1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DE BLASIO 뉴욕시장, 증오범죄 가해자들을 체포 및 유죄 판결로 이끄는 모든 정보에 대한 보상금 인상 발표

증오범죄 및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공격적인 일련 조치 중 가장 최근 조치인 2 만 달러를 제공하는 뉴욕주와 뉴욕시 공동 보상금

편견 또는 차별 불만에 대한 신고는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 뉴욕시 경찰청 범죄 방지단 (NYPD Crime Stoppers) 1-800-577-TIPS, 또는 81336 번에 문자로 "HATE" 전송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오늘, 증오범죄에 대한 체포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모든 정보에 대해 현재 5,000 달러의 뉴욕주 보상금에서 2 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와 뉴욕시 공동 보상금으로 보상금 액수를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상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어제 발생한 브루클린의 유대인 어린이 박물관 (Jewish Children's Museum)에 대한 폭탄 위협과 이번주 초에 발생한 맨해튼의 반 유대주의 대항 동맹 (Anti-Defamation League)에 대한 폭탄 위협을 포함하여 뉴욕시, 뉴욕주, 미국 전 지역에서 증오범죄와 반 유대주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가 항상 관용과 수용을 위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자유의 여신상 (Statue of Liberty)이 뉴욕항에서 성화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협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께서 증오, 편견 또는 차별에 관련된 모든 사례를 신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책임져야 하는 가해자들로 하여금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방 및 지역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의 유대인 지역사회에 빈번히 발생하는 위협 사건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위협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선 심각하게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주민로서 우리를 겁먹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분열시키려는 비겁한 전술에 직면하여 우리는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 지역, 주, 연방의 법 집행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주지사님과 힘을 합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시 경찰청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이 그림자 속에 오랫동안 숨을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뉴욕주의 증오범죄 사건들은 지난 5개월 동안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증오범죄로 보이는 사건들이 100건이 넘게 보고되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보고된 사건의 수가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6년 11월과 12월에 뉴욕시 외부에서 보고된 사건의 수도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당한 뉴욕 주민은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 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화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또는 81336 번으로 “HATE”라는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뉴욕시 경찰청 범죄 방지단 (NYPD Crime Stoppers)에도 1-800-577-TIPS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방 및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편견 및 차별 관련 사건들을 근절하기 위해 일련의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11월, Cuomo 주지사는 증오범죄를 수사하며 잠재적인 증오범죄를 수사하는 다른 법 집행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립경찰 증오범죄 수사단 (State Police Hate Crimes Unit)의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주지사는 이데올로기, 신념 또는 사명 때문에 증오범죄 또는 공격의 위험에 직면한 뉴욕의 학교 및 보육 센터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주 초에 주, 카운티, 지방 법 집행 기관의 직원 120명 이상이 법 집행 공무원들이 수사 기법을 최근의 훈련을 통해 최신 기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버니의 주립경찰학교 (State Police Academy) 에서 개설한 뉴욕주 증오범죄 수사학교 (New York State Hate Crimes Investigation School)의 훈련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뉴욕주의 종합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de Blasio 뉴욕시장, James O'Neill 경찰청장, Robert Boyce 형사 반장은 스테튼 아일랜드 유대인 지역사회 센터 (Staten Island Jewish Community Center)에서 뉴욕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반유대주의 증오범죄의 놀라운 증가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서 온 유대인 지역사회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의 증오범죄는 거의 115 퍼센트 증가한 반면 반유대주의 범죄는 약 20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청 (NYPD)의 증오범죄대책팀 (Hate Crimes Task Force)의 규모를 확대하여 늘어나고 있는 폭탄 위협 사건들을 수사하는 것 외에도, 지역 조정 국장 (Neighborhood Coordination Officers, NCO's)과 개별 관할 경찰서 서장들 (Commanding Officers)은 추가 보안 자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빈번하게 지역사회 센터 및 문화 시설들을 방문하여 지역 경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청 (NYPD)의 지속적인 보안 활동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들을 특정 장소에 추가로 업그레이드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